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아티스트 토크  
이신애 <첫 장의 뒷면>

일시 : 2015년 1월 16일 (금) 오후 6:00 - 8:00

장소 :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기록 : 윌링앤딜링

김인선 : 윌링앤딜링에서는 항상 전시마다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해왔습니다. 2년 정도의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하며 저 스스로도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기도 하여, 변화를 가져볼까 하는 생각으로 작가와 친구이거나 혹은 일이나 공부 때문에 작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시와 작품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작품에 대한 진지한 프리젠테이션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신애 작가는 첫 전시고, 처음으로 본인의 작업을 보여주는 자리이기에 자연스럽게 작가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지인들의 생각도 들으며 전시와 작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큐레이팅을 하거나 전시를 할 때, 작가 자체의 이야기를 끌어내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마침 이신애 작가가 우리 갤러리에서 일을 하는 동안 옆에서 지켜본 결과 이 사람의 감각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함께 전시를 해도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스스로도 작가를 먼저 만나보고 그 후에 작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작가의 감각에 대해서 풀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작가의 지인들이 모여서 친밀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작가와 교류를 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기간 전시를 준비하며 고민도 많이 했겠지만 워낙 성격이 낙천적이고 재밌게 일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준비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 좋은 작업을 만들어 내주셔서 기분이 좋고 재밌습니다. 저희 공간과도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마디씩이라도 전시나 작업에 대해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을 말씀해주시거나 혹은 궁금한 것들을 작가에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먼저 작가로서 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겠어요?

이신애 : 이 전시에 있는 작품들은 전시를 위해 만들어낸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전부터 해오던 작업들을 정리하면서 완성한 결과물입니다. 제가 이 전시의 제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전시를 구성한 작업들을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대상의 겉으로 드러난 면 보다는 대상의 이면의 모습에 큰 재미를 느끼고 그것이 제 작업의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뒷면에 있기 때문에 스쳐 지나기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장의 뒷면>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책의 제목이나

지은이 등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 겉표지 즉, 표면적인 것의 뒷면이라는 그런 부분이 제가 대상을 바라볼 때 관심이 가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전시에 있는 작품들도 모두 대상의 그런 면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일단 제목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작품 하나하나가 가진 주제 보다는 제가 작업으로 표현할 때 제가 가지고 있고 사용하는 감각이 관객들이 느꼈으면 하는 점입니다.

김인선 : 이신애 작가가 전시를 오픈하고 다른 작가와 이 전시의 제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신애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표면적인 모습보다 그 사람이 가진 실체를 파악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이면에 흥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그냥 바람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글자로 표현하고 선풍기를 통해 시작적인 움직임과 청각적인 효과들을 모두 조합해서 내가 생각하는 바람이란 것을 보여줍니다. 뒤에 보이는 것은 풀장 이미지 인데, 풀장이라는 것은 갇혀진 장소 안에서의 수동적인 존재이고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수영장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죠. 작가는 수영장의 물을 통해 물이 흘러넘치고 튀어나오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상상하고 마치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나무나 잔디 시리즈도 비슷한 재미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 장의 뒷면>은 그런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것이 관통하는 주제는 아니라고 했지만, 분명히 그것을 관통하는 감각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작품에 대해 질문이나 코멘트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김시연 작가님께서 먼 길을 오셨는데,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시연 : 작품을 감상할 때 관람객의 취향이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신애 작가의 작품들은 제 취향입니다. 영상에서 흰 배경에 검은색의 이미지가 중첩하는 형태도 재미있고, 다음이 궁금해서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신애 작가는 제가 전시할 때 일을 도와주었었는데, 꼼꼼하고 성실한 태도가 드러나는 신애씨다운 작업 같습니다. 오늘 이신애 작가의 작업을 처음 보았는데 작업을 보니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만으로 충분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술적으로 심도있는 해석보다는 저는 그냥 제 감상을 이야기 했습니다.

김인선 : 작품이 이신애 작가 같다는 이야기에 공감을 합니다. 이신애 작가를 아는 또 다른 분께서 덜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이신애 작가 같은 작업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신애 작가가 프랑스에 가는데 우리는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떠난다고 생각하고 엄마같은 마음으로 걱정했지만, 영상 작업을 보고 어떤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걱정을 했지만 이신애라는 작가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었던 것이고, 거기서 또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걱정 없이 낙천적으로 나름대로 잘 해 나아갈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전시 작가인 이정엽 작가께서 방문해주셨습니다. 전시에 대한 감상 부탁드립니다.

이정엽 : 제가 이신애 작가님을 잘 모르지만 작품을 보았을 때 만화책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화에는 텍스트로 의성어를 표현하고 라인드로잉으로 공간을 표현하는데, 역시 젊은 영상세대 답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인선 : 이신애 작가는 동양화와 영상을 전공하였습니다. 드로잉을 보면 바탕은 장지고 푸른 면과 선은 동양화에서 쓰는 물감으로 세필과 큰 붓으로 면과 선을 표현하고 나름대로 농담을 세밀하게 조절하며 공을 들여 그린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면 세필로 하나하나 그린 흔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붓이 움직이는 자국 없이 마치 종이를 물들인 것처럼 보이는 희미한 면들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텐데, 단순한 드로잉같지만 들여다보면 볼거리가 많아서 재미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씨막걸리의 사장님이신 안상현씨 감상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안상현 : 저는 이신애씨가 친구들과 함께 오곤 했던 막걸리 집의 사장입니다. 이 전시를 보고 작가가 젊은 사람답게 다양한 면이 있고, 그것을 잘 정돈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신애 작가가 저와 술을 마실 때는 한명의 폭도 같은 모습이라면 작가의 생일에 또래 친구들과 함께 왔을 때는 어린 여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전시를 보면서도 차분하게 자기가 관찰했던 것을 정리하려고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신애의 마음속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재미있었습니다. 프랑스 유학을 다녀와서는 다른 것이 담겨 와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렇게 정돈된 모습이 아닌 다른 면도 표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전시도 궁금해집니다.

이신애 : 여기 라운드 테이블은 저의 여러 가지 다른 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 토크가 굉장히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저는 만나는 대상에 따라 다른 모습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서로에게 맞춰나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와 다소 달라지는 스스로의 모습에 재미를 느낍니다.

안상현 : 저와 함께 있을 때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신애 : 안사장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때에 맞는 모습으로 맞추는 겁니다. 또 참한 친구들과 함께할 때는 저도 그 무리들처럼 참해지기도 하는 거지요. 저는 이런 것들이 재미있지만 제가 작업을 할 때에는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모습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유머 코드나 너무 무거운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볍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나

제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선 :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신애의 큰 재주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이 사람은 이렇구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이끌어내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작가의 친구들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신애 : 먼저 대학시절 동양화와 실기실에서 함께 작업 했던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인선 : 동양화의 전공자 입장에서 이 작업의 색다른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가 동양화 전공을 했고 그림에 동양화 재료를 사용했지만 특이한 점이 있지 않나요?

여지수 : 제가 동양화와 출신이지만 지금 동양화라고 할 만한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공과 연관지어 말하기가 어렵게 느껴지네요. 이신애 작가와 함께 작업을 많이 했고 서로를 너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작업들이 저에게 색다르게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작가의 색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고, 이신애 작가에게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이제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을 하기 위해서 다 같이 손잡고 앉아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점이 좋아요. 스스로 동양화에 얽매이지도 않지만 모든 재료를 이렇게 낙천적으로 즐기며 사용한다고 해서 가볍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동양화라고 해서 꼭 꽃을 그리거나 동양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자신이 연출한 것에 있어서 이정도는 되어야지 하는 기준,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가볍게 건드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떻게 보면 모든 작업에 편안하게 어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양화를 전공한 사람들이 와서 틀은 어떻게 배접은 어떻게 하지만 사실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자유롭게 작업을 해 나가는 것이 나쁘게 표현하면 가벼운 것이지만, 좋게 표현하면 긍정적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선 : 동양화 친구들이 전시를 보고 언급하신 것들에 대해 지적을 많이 했나요?

이신애 : 아니요. 기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친구는 없었습니다.

김인선 : 친구들은 전공자로서 동양화의 최신 트렌드에 대해 관심도 많고, 정통 동양화와 다른 방향으로 작업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입장에서 이신애의 작업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여지수 : 제가 동양화과 출신이기 때문에 산수화를 그릴 줄 알았다고 하는 지인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동양화의 경계도 애매하지만 저는 동양화를 하는 사람들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동양화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산수화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현대 미술은 서양 역사의 흐름처럼 가는 것처럼 여기지만 동양화는 그것과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동양화 전통 재료를 쓰는 작가들이 동양화 작가라는 인식이 생기게 된 것이 동양화 스스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주위의 동양화를 전공한 친구들은 다행히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화 재료가 아닌 것을 썼다고 해서 이단으로 보거나 하진 않습니다.

김인선 : 이전에 손동현 작가가 전시를 할 때 거부반응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양화는 아직 힘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신애 작가가 좋은 작업을 해줘서 좋습니다.

이신애 : 저 분은 제가 사진 수업을 들으면서 만난 임한솔라는 친구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한솔 : 제 전공은 건축입니다. 처음 이신애를 알게 된 것은 사진수업에서였습니다. 그때 제 건축사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직되어있었습니다. 마치 일종의 데이터를 다루듯이 사람이 없을 때 찍어야하고 적당한 때를 기다렸다가 그림자와 형태가 정확히 원하는 대로 맞춰져있는 상태에서 찍어야했습니다. 하지만 이신애 작가의 스냅사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벼움이라는 것의 자유로운 에너지가 부담스럽지 않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도록에서 따로따로 날개의 작품들을 보다가 전시라는 구성을 보게 되니까 작가가 자기가 해왔던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전시를 위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의 구성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구성에는 하나하나의 그림보다는 어떤 생각들이 들어갔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처음 제목을 봤는데 제목 자체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 제목에 들어가있는 사진이나 텍스트들이 잘 연계가 되었는지는 조금 의문스러웠거든요. 그때는 실망했다고 말하기 보다는 가서 확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목은 잘 정했는데 왜 이 제목인지에 대해서는 작가가 직접 설득을 시켜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전시 공간에 들어오면 사진과 텍스트가 보이는데 첫 장의 앞면과 두 번째 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바로 느낌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인공과 자연이기도 하고 그걸 바라보면 느껴지는 외면과 내면인 것 같기도 하고. 첫 장의 뒷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이 있었는데 보다보니까 예전에 제가 이신애를 보던 시선이 자유로움이었다면 여기서 그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자기에 맞는 옷을 입어보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전시물들 중에서 특히 제가 흥미로웠던 것은 저 벽 끝에 있는 그림들인데 처음에는 다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공과 자연이라는 테마랑 첫 장의 뒷면이라는 것은, 이것이 첫 장에 시작되는 거고 이 후의 작업세계가 첫

장의 뒷면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였더니 이제는 텍스트들이 같이 어우러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게 왜 흥미로웠는지는 작가와 나중에 길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작가가 어떤 말을 했을때 그 내용이 무겁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가벼울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기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선 : 생각보다 전시 제목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이 전시 제목에 대해 열심히 들여다볼 줄 미처 몰랐는데 저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첫 장의 뒷면이었을까요?

이신애 : 저는 가장 앞에 드러난 부분의 뒷면을 생각했습니다. 책을 예로 들어 표지가 있고 안에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스쳐가는 도면이 첫 장의 뒷면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목을 상당히 감각적으로 지은 것입니다. 작품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제목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전시를 보면 설치, 영상, 사진, 드로잉이 모두 있는데, 한 가지 매체에 집중해서 표현을 하기보다는 제가 떠오르는 다양한 감각을 다양한 매체들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그렇게 텍스트로 만들 수 있는 작업처럼 정한 것이구요. 저는 스스로 다분히 감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저에게 왜 프랑스로 유학을 가냐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영국미술은 어떤 면이 좋고 또 독일은 어떻게, 이렇게 국가별로 미술사적 위치나 평가들이 존재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제가 영국 작가들의 작업을 보며 전체적으로 느낀 점들, 독일 작가들의 작업에서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독일 작업들은 저에겐 남성적인 작업으로 느껴지고, 옳은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영국 작가들은 배설적인 작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이런 점들이 제가 하고 싶은 작업과는 서로 잘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감각적인 생각들로 선택을 하는 방식이 프랑스 작가들의 위트 있고 동시에 여성스러운 방식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유학을 결정하는 것마저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질문에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제 앞에 앉아있는 세 친구가 예술고등학교 동창들이는데 지금은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한 친구는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친구는 어떻게 이야기할지 궁금하네요.

여지수 : 저는 이신애 작가가 동양화와 영상매체를 복수 전공하며 해왔던 작업을 했는지 지켜봐왔기 때문에 작업의 외적인 부분에서는 익숙하게 느꼈습니다. 이번 전시를 보고 저는 작가에게는 기록이 매우 중요한 것 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가 사진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고, 작업이 여러 가지 면에서 기록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림을 보면 감각적인 드로잉이라기보다는 작가의 개인적인 느낌을 기록하고 설명해주려는 것 같고, 그렇게 기록하는 방법에 있어서 작가의 태도가 솔직하다고 느꼈습니다. 아까 동양화 매체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었는데, 이신애에게는 동양화가

자신의 전공 중 하나일 뿐이지 작가에게 특별히 중요한 매체라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양화를 전공했으니까 동양화 재료를 사용했고, 마찬가지로 영상도 영상매체를 전공했기 때문에 기록의 수단으로 사용했던것 같습니다. 매체에 대한 고민이 이 전시에 드러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가가 사진동아리 활동도 하고 본인이 흥미있고 잘 다루는 매체를 통해 일상에서 본인에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감정이나 순간들을 솔직하게 기록하려고 했던 것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김인선 : 이 전시를 준비하며 많은 양의 사진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한 장을 제외하고는 전시가 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이신애 : 제가 사진을 이용해 인공물인 저 가짜 잔디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만든 이유는 진짜 잔디가 저에게는 가짜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잔디 설치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도시에 곳곳에 있는 자연물인 잔디는 원래는 그곳에 없었지만 도시를 계획하거나 공원을 만들면서 잔디가 심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도심 속에 잔디가 생성 되었고, 서울 시청 앞의 잔디가 있는 공간도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공간이 사용되면 다시 자연스럽게 잔디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또 새 잔디를 심고 교체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런 모습이 가짜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잔디는 나에게 생화가 아니라 조화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가짜 잔디같은 느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림으로 그리는것보다 입체적으로 표현되면 진짜 같은 가짜의 느낌이 잘 전달될것 같았습니다. 진짜 잔디밭과 제가 만든 가짜 잔디를 함께 찍었을 때, 평범한 도시풍경이 아닌 진짜와 가짜가 충돌하면서 나오는 아이러니함이 좋아서 사진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많이 있는 것이 과연 이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인지를 고민하다 사진 한 장으로도 충분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하였습니다. 몇 장의 사진이 있었지만 제가 공간의 특수성을 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장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시형 : 질문이 있습니다. 서울시청의 잔디가 교체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공잔디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진짜 잔디를 썼는데 기술적 문제나 이런 것들로 교체되는 그런 현상에 질문을 던지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이런 작업을 했다면 오히려 그 잔디를 가져다가 그대로 썼을 것 같은데 직접 만드신 이유가 있나요?

이신애 : 저는 그 잔디를 보면서 진짜 잔디였음에도 그것이 진짜 같은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사진을 활용했습니다. 사진이 단면적으로 볼 때는 사실성 있는 매체 중에 하나지만 그것을 잘라서 입체로 만들었을 땐 비현실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초록색 종이가 아니라 진짜처럼 카피한 종이인지 혹은 진짜 잔디처럼 보이는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재미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시형 : 말씀의 요지는 서울시청의 잔디가 진짜 잔디이지만 진짜 잔디처럼 살아있지 못하는 존재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잔디를 이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잔디가 들판에 어우러져있지 못하고 여기 와서 이 공간에 놓여있다고 한다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표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잔디를 가져왔더라면 더 직설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 : 저는 이 상태가 이신애 작가가 표현하는 스타일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에는 이신애 작가의 시선과 작업하는 스타일이 그대로 녹아 있다고 봅니다. 이신애 작가의 작업은 사회적 이슈를 다룬 작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비판적인 시각을 담아 표현 할 수도 있지만, 작가가 표현하는 것에는 비판적인 시선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굉장히 감각적으로 풀어내어 보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있는 잔디를 다 가져와서 놓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짜 잔디를 진짜처럼 보이게 만든다거나, 가짜 잔디와 진짜 잔디를 섞어 놓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을 텐데, 작가가 선택한 표현방식이 적당한 것 같아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거기에 있는 잔디를 직접 가져왔다면 비판적인 시선이 조금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신애 : 진짜 잔디가 있던 서울시청에서 가져온다면 비판적인 시선이 부각이 될 수 있지만, 서울에서 느꼈던 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 사진을 활용해서 가짜처럼 만들어 위트있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남자 : 이 설치 작업(스스스스스스스)은 무엇을 표현하나요?

이신애 : 의성어를 읽을 때 의성어 자체가 소리를 직접 낸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기호로 만들어낸다면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 기호를 읽을 때, 저와 같은 비닐을 써서 바람이 흔들릴 때의 마찰을 이용해 좀 더 시각적으로 '스스스스' 거리는 소리와 함께 쓰인다면 '스스스스' 라는 소리를 또 다른 방식으로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으로 '스스스스'라는 표현을 할 수 도 있고, 기호와 함께 일렬로 설치된 종이의 움직임과 같이 읽으면 재밌을 것 같았습니다.

이 수영장을 그린 그림들의 제목은 <쓸모없는 수영장>입니다. 겨울의 여의도의 빈 수영장은 물도 없고, 아무도 쓰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상한 풍경이라고만 생각하다가, '저기 물 차있을 때는 어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의도 수영장 바로 앞에 한강도 있지만, 이 수영장의 물은 인공적으로 채워지고, 인공적인 순환을 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되지 않는 물에 내가 임의로 짝 지어놓은 에너지를 공급해서 그 물이 갇혀있는 공간에서 벗어나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으로 제 상상을 그린 작업입니다. 그런데 저는 물을 생각하고 표면에 뿜어져 나오는



것을 그렸는데 많은 분들이 설치작업 <서울잔디>와 같이 있기 때문인지 잔디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움직임과 크게 넘쳐가는 것을 기호화해서 표현한 것인데 저에게만 그렇게 생각되는지 궁금합니다.

남자 : 저는 저 사진 작품이 인공적으로 계획된 공원을 나타내는 사진같다고 생각했고, 그런 맥락으로 저기에 있는 잔디도 모두 인간이 임의로 심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공원을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모습을 표현한 작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작품에서 들리는 '스스스'하는 소리마저도 무척 인공적으로 들렸습니다.

김인선 : 작가는 자연이라는 주제로 인공이나 자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신애 작가는 태어나서 계속 자라온 장소가 여의도라고 합니다. 여의는 조성된 섬이고 철저히 사람들의 관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살다가 어느 날 떠났던 여행에서 무인도를 가게 된 것이죠.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자연을 접하다가 갑자기 아름답게 만들어진 정원을 봤을 때 받는 느낌이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이 작가는 그렇게 조성된 곳에서 살다가 야생의 무인도를 봤을 때 어떤 충격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살던 환경의 자연에 대해 다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접하는 환경의 다른 면을 자주 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자연의 대한 기억을 환경에 대입시켜가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작업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원 : 저는 회화작가입니다. 사실 오기 하루 전에 저 분이 작업을 하신다는 것도 알았고 가끔 여기 오면 보였던 직원분이 이신애 작가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개인전을 하신다 하셔서 초대를 받아 왔습니다. 아까 첫 장의 뒷면이라는 제목 얘기도 있었지만, 첫 개인전이기 때문에 첫 개인전을 한 장으로 치면 이 자리가 뒷면 같은 것일 겁니다. 아직 그 뒷면이 딱 차지 않는 작가 프로필을 여기서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장 안에 있는 풀, 바람, 나무, 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물은 실제로 있진 않지만 물이 담기는 공간을 만들어서 물을 환생시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왜 흙은 없는지 의아하다가 여의도에서 자랐다면 흙 밟을 일이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신애 작가와 같이 저도 인공 섬에서 자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 고향은 뚝섬입니다. 저도 뚝섬에서 자란 도시사람인데, 처음 이신애 작가가 서울 사람이라고 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작업을 하는 친구들처럼, 소위 말하는 옛지있게 자기를 드러내거나 하지 않고, 고향이 시골이라서 성격이 좋은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원근법이 맞지 않아 거슬리기도 하지만 여기 와서 설명을 듣고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작업은 파란색 물감을 많이 사용했지만, 사람은 매우 노란색에 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란색은 다른 색이 들어가면 색이 확 바뀌는 색입니다. 노란색처럼 다른 사람이랑 부딪혔을 때 돌변하는 성향을 가졌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에 도장을 찍었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너무 정교하게 패턴이 그려져 있어서 작업하

는 사람들 특유의 약간 편집증적인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살아가면서 도시의 낯설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순간들, 그 순간들에 대해서 비판의식이나 정치적인 입장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일차적으로 표현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임한솔 : 처음 이신애 작가의 전시를 보았을 때 투시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맥락이 파편적인 느낌이 듭니다. 위치에 따라서, 저 천장의 설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것만 떼놓고 봐도 충분히 읽고 싶어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이신애 작가가 전에 했던 것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연장선 상에서 얘기를 하자면, 저 안에 있는 것들이 물이든 잔디든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 그림들은 두가지로 나누어 보게 됩니다. 앞 쪽 부분(작품 순서상 입구쪽 6점)은 위쪽에 그려진 물들이 주인공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물들에 의해서 아래에 있는 면들이 영향을 받는 구조라면, 뒤쪽에 저 면이 갈라지는 부분 이후부터는 면에 의해서 아래 있는 것들이 달라지는 관계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안에 있는 것 같아서 자꾸 읽어보게 되고 그러다보면 또 맨 앞에 있는 것과 맨 뒤에 있는 것에 물인지 풀인지 모를 뭔가가 흘러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첫 장의 뒷면'이라는 제목도 쉽게 이해됩니다. 이를테면 '이게 자연이냐 인공이냐' 라는 그 질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민의 과정이 나타났다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신애 작가의 작업은 첫 장을 넘겨보는, 그 생각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이다'라는 것보다 '이게 이것일수도 있고 저것일수도 있는데 난 어떻게 보고 있고 내 얘기는 어떻게 하고 싶다'와 같은 얘기가 느껴집니다. 저 벽면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서 맥락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는 전시 제목과 앞에 있는 모인 텍스트를 종합하여 읽어봤을 때, 이 전시의 시작은 감각에서 끌어올려져서 이것들에 대한 구성을 분명히 찾고 있고 그 각각의 맥락을 찾아 나가고 있다는 생각에 무척 좋았습니다.

김인선 : 전공이 건축이시라서 공간과 구조 등의 맥락으로 특이하게 잘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신애 : 제가 이신애 작가를 좋아하는 이유가, 비단 이것만 아니라 제 사진에 대해서 모르는 말을 많이 해줍니다. 그것이 흥미롭습니다. 역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표현으로 말을 많이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투시와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이게 다 정확하지 않고 틀립니다. 하지만 약간 거슬러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 제가 동양화를 선택했던 것도 그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양화과나 디자인 쪽은 소묘력등을 중심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동양화는 사실 그 부분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수업자체가 똑같이 표현한다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속으로 소화해서 풀어내면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때 동양화가 무척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윤석원 : 제가 아까 투시가 거슬린다고 해서 못 참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동양화 공

부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생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동양화에서는 투시를 역투시를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역투시를 쓰는 이유가 자체가 사물이 가진 정면을 보는 게 아니라 모든 면을 최대한 많이 돋보이기 하기 위함이라면 그 연장선상으로, 작가 분이 가진 대상의 이면을 보여주기 위해 플랫폼하게 펼침으로서 다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면, 투시를 맞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신애 : 일부로 맞춘다고 생각한대기보다 맞춘 듯 안 맞춘 듯 내 손이 가는 손맛 같은 느낌을 살리면서 하는 작업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임한솔 : 건축에서는 정확한 3D가 나오기 전에 좀 더 정확한 치수로 저런 식으로 플랫폼하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지금 작가는 원근법을 무시하고 3D를 표현 할 수 있는 아주 규칙적인 방식을 택해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규칙적인 방식이 드로잉을 감각에 의존해서만 진행했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객관적인 표현이 일부로 감각을 배제한 채 그렸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신애 : 저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제 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 딱 맞춘다는 생각이 아니라 맞춘 듯 안 맞춘 듯 그런 느낌으로 그렸습니다.

임한솔 : 자를 사용하셨나요?

이신애 : 자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맞추지 않았습니다. 의도를 약간 넣었습니다. 각도가 완벽히 똑같이 평행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원 : 단조로운 색깔과 여백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만약 투시가 있었다면 지금의 느낌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시를 쓰지 않고 사실적이지 않은 지금의 느낌이 좋습니다.

임한솔 : 이것은 나무로 만들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저는 나무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돈도 많이 들고 가공도 힘든 스테인레스가 더 나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신애 : 소재도 비닐이고 이 구조물도 스테인레스고 여기서 나오는 바람 자체도 선풍기 바람이라서 인공적인 느낌의 통일성을 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라는 것 자체가 인공적인 틀이어서 그런 것들을 통일을 해서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임한솔 : 업체에 제작해서 주문한건가요?

이신애 : 네, 주문했습니다.

여자 : 이전 작업에서는 빨래 건조대로 작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신애 : 밖에서 찍은 영상에서는 잔디가 바람에 흔들릴 공간에 빨래 건조대를 놓고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붙여서 잔디 바람과 빨래 건조대와 '스' 소리를 같이 기록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때 빨래 건조대를 처음 시도해봤는데, 빨래대라기보다 단순히 바람 거치걸이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빨래 건조대를 사용했습니다. 이번 작업에서 빨래 건조대를 실내에서도 사용한다면 다른 의미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거리를 걸으며 촬영하다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흐름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자로 배열하여 혼란스럽게 흔들리지 않는 움직임을 만들고 싶었구요.

여자 : 저는 빨래 건조대와 신애씨가 그 앞에서 왔다갔다하는 모습의 영상을 볼 때에는 오히려 헤드폰을 끼고 있었는데도 음소거 영상을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작업은 설치를 통해 의도적으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전 작업에선 공간 속에 설치되어있는 모습이 의도적이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었었습니다.

여자 :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장의 뒷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전 영상을 볼 때에는 '이신애가 '스'를 널어 놓는다'라는 것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신애 작가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작업을 하면서도 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점이 영상 속에서도 보였습니다. 영상을 봤을 때에는 '이신애가 '스'를 널며 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지, '스'가 특별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서는 '스'라는 글자가 바로 보여서 제목이 다시 한번 보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 자체는 영상이 더 흥미롭긴 하네요.

이신애 : 제목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군요.

여자 :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시리즈의 사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진이 하나로 끝나서 아쉬웠습니다. 같은 장소 다른 각도의 잔디만 있는 것이 제가 느낄 때는 그것으로 인해 더 강한 느낌이 만들어 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사진 하나만으로는 힘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아까 얘기 했던 것처럼 직접 잔디를 따오는 것이 어떨것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엔 만약에 저 사진이란 이미지 속에서 이미 다른 장소, 다른 모습 인공잔디가 놓여있는 찍은 사진이 좀 더 있었더라면 그 메시지가 좀 더 강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사진이 여러 장이 있었다면, 잔디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느낌이 더 강하게 들 것 같은데, 조금 힘이 약해 아쉬움을

느낍니다.

오세원 :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대부분이 작업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세심한 부분을 통해서 각자 상상하신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해주시는 것 같아 재미있습니다. 모두 이신애 작가의 지인 이시니까 이미 이신애 작가의 성향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작가로서의 여태까지 그러오던, 관심을 가져온 부분과 삶과 얽혀져있는 것들을 너무 잘 아셔서, 그것들이 곁들여져서 이야기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신애 작가님의 작품을 봤을 때 우선은 작가님이 주는 선선했음이 느껴졌습니다. 윤석원 작가가 처음에는 이신애 작가가 밋밋해보이다가 신발의 디테일을 보고 생각이 바뀐다고 했던 것처럼, 이신애 작가는 매우 양파같은 사람이란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주 전에 이신애 작가님이 저한테 종이 한장을 딱 내밀더니 저보고 꽃을 그려 달라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꽃이라는 글자를 써주었습니다. 이것을 왜 그려달라고 여쭙봤더니 이미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그러니까 이미지의 해석, 그리고 이미지가 우리에게 주는 전시적인 것, 그리고 이미지가 우리의 시각을 얼마나 혼란시키는지 이런 문제들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작가가 이미지에 가지는 정치적인 측면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시를 보면서 작가가 이미 조형적인 감각이 잘 훈련된 사람이라는 측면과, 공원의 가진 이면의 대한 얘기를 한다고 느꼈습니다. 공원이 가진 정치적인 측면, 예를 들어 관리나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길을 반듯반듯하게 만들었더니 시민들이 불만을 얘기하거나, 시민들이 왜 오솔길을 없앴냐는 불만을 말할 때, 그들에게 던져주기 위해 공원을 만든다는 것과 같은 정치적인 측면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남산공원과 청계천이 이명박 정권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이면의 얘기를 하려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태도가 훈련되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 훈련이 되어있는 작가로서 그녀의 성향 자체가 선선했습니다. 완전히 드러나는 건 싫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러내기 보다는 조금 더 위트있게 표현하고 싶은, 조금은 유머러스한 성향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설치된 상황은 인공공원의 모습이지만, 인공공원이 가진 정치적인 무서운 측면은 전혀 안 보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나, 조형적인 작가로서의 훈련된 여건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태도에 있어서의 선선했은 성향이 이런 전시 형태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이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것을 보면서 조형적인 아름다움도 추구하는 감각적인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료와 같은 테크니컬한 부분에 있어서도 훈련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체를 정하거나 하는데 있어서, 본인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어떤 길로 갈 것인지만 정해지면 좋은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작가적인 태도도 좋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자체가 잘 융합되어서, 이제 유학도 가시니까 갔다 와서 더 좋은 작품으로, 좋은 전시로 만나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작가님에게 조금 욕심을 부리자면 여기서 조금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차라리 조금 더 정치적인, 이미지의 정체성과 같은 것들을 노골적으로 조금은

더 보여주는, 깊이 있는 기록 작업을 기대합니다. 잘못하면 애매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록의 과정을 노출시켜서 조금 더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정말 조형적인 것을 보여주거나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것이었어?'와 같은 반전의 미, 양파처럼 자꾸 새로운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보여지면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여의도가 알고 봤더니 인공 섬이었고 그것에 대해 뒤늦게 고민하고 해쳐나가는 와중에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한 점이 있는데, 김인선 디렉터님이 사실 이신애 작가와 거의 매일 생활하시는데, 디렉터님은 이신애 작가의 작품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인선 : 제가 아까 잠시 언급 했지만 제가 작품을 더 깊이 읽기 위해서 예외적인 몇몇 경우를 빼고는 한 사람으로서의 작가를 관심있게 봅니다. 조금 오랜 시간동안 알던 작가, 옆에서 작품의 변화도 많이 봤던 작가와 작업을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신애 작가도 작가 자체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신애 작가를 작품으로 먼저 알기 전에 인간적으로 매력적인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 작가 가지고 있는 삶이 즐거워지게 만드는 모습에 저는 개인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은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신애라는 작가가 유학을 준비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것을 뒤에서 보면서 이 작가의 재밌는 성향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작업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작업에서 특이한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이 작가 자체의 이미지와 매치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작가를 개인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까 오세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신애 작가의 작업은 어떠한 것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지 않고 약간 숨겨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의 성향이 비판적인 부분을 강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성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만약 이신애라는 작가가 조금 더 강하게 무언가를 어필을 하게 될 때가 온다면, 유학이 힘들다던지 해서 성격이 조금 더 모질게 변해갈 때가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작가 본인과 작업을 연관시키게 되다보니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세원 : 박윤삼 작가는 이신애 작가와 친하고 또 거의 매일 만나는데, 전시를 어떻게 보셨나요?

박윤삼 : 이신애 작가는 저와는 매우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품도 다르고, 작품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다르고, 감각적인 면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신애 작가 작품에서는 제가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 않아서 이야기 할 때 조심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제 맘에 들지는 않지만 이 중에서 그래도 그림이 가장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에는 작가만의 미묘한 감각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들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는 달리 이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오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곳에 있는 설치작업이나 영상작업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일단 오세원 선생님께서 매체를 다루는 것에 트레이닝이 잘 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작품의 재료를 하나하나 선택하는데 큰 고민 없이 선택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완성도 또한 떨어진다고 느껴집니다. 어떤 작업은 나이브한 면을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흔할 뿐 아니라 작가들이 쉽게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브한 것을 해놓으면 마치 예술을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신애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완성도 측면에서도 더 할 수 있었는데, 작업을 너무 쉽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것을 정말 드러내 보이는 것이 이유였다면, 문제는 그런 것에서 오는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스스스스스' 작품의 경우에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진 부분도 공장에 의뢰를 해서 제작한 것인데, 그런 과정이 너무 고민 없이 쉽게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재료를 선택함에 있어서 왜 내가 다룰 수 없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선택을 했고, 그것이 왜 공장에 맡겨졌는지, 왜 다른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을 작품에 썼어야 했는지, 그런 것들에 따른 고민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치된 것을 보면, 회화 그림을 벽에 걸기 위해 사용하는 철제 고리가 보입니다.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이 너무 눈에 띄어 작품을 보는데 거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작업을 보면 영상에 보이는 종이의 크기나 재질의 선택에 세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됩니다. 작가가 종이들을 마치 카드를 섞듯이 섞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섞기엔 너무 큰 종이들을 작은 손으로 무리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반투명한 재료를 선택을 한 이유도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언급한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한다면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세원 : 박윤삼 작가도 올해 10월에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고민 많이 하시고 전시하실 것 같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들을 들어보니 이신애 작가에 대한 애정도 느껴지네요.

이신애 : 저와 평소 매우 친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작업에 대한 것은 저와 성향이 매우 다릅니다. 그런 점이 더 재밌어서 서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박윤삼씨는 논리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작업을 좋아하고 저는 감각적인 작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 작업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세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매체가 능숙하다는 이야기는 완성도에 있어서 완숙의 느낌 보다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이러한 매체들을 처음 사용해 본 사람이 아니라는 정도의 의미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이런 설치작업들이 재밌어서 시도해보는 것들이지, 제가 나이브한 것들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철제 고리 같은 것은 제가 부족한 부분들 일수도 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소재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작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가벼운 소재의 금속, 어느 정도의 바람이 불 때,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어야 가장 보기 좋게 흔들리는지와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표현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충분히 도움을 받아서 완성을 했습니다. 영상 작업에서의 종이는 타로 카드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었고, 종이의 드로잉이 너무 작아지지 않도록 사이즈를 정했습니다. 또 재질은 투명한 소재로 프린팅 할 수 있는 것을 정하는 등 저 나름대로 일련의 과정을 거쳤는데, 보는 사람이 보기에는, 특히 더 친한 사람이 보기에는 분명히 거슬릴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박윤삼씨의 말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조그만 손으로 종이를 무리해서 넘기는 것 같다는 지적은 재밌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와 너무 작업을 보는 시각이 달라서 이렇게 봐주는 면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박윤삼씨랑 얘기하면서 느끼는 것은 박윤삼 씨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러프한 작업을 하면, 박윤삼 씨는 저는 이런 성향의 작가라고 바라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박윤삼 작가만의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선 : 실제로 두 사람의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개인적으로도 둘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함께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박윤삼씨 경우는 매우 꼼꼼하고 섬세한 면이 있어서 이신애 작가의 작업 형식에 대해 자연스럽게 지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게도 거슬리는 부분이 있지만 작가의 성향으로 여기고 넘어가더라도 저분 성향으로는 또 다를 수 밖에 없겠지요. 아마 이신애 작가에게는 작업의 형식보다는 그 내용이 주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박윤삼씨의 이견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원 : 이신애 작가는 그런 지점들이 작업의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한 매체라는 것은 건조대처럼 보이는 스틸과 같은 매체, 이런 매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영상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잔디를 활용하는 것이나 '스'라는 문자를 활용하는 것까지 다 포괄한 매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매체라는 것이 모두 한 단계 변증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중간체잖아요. 그런 논리 작용, 작가로서의 논리 작용이 능숙해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박윤삼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신애 작가에게 애정이 대단히 깊으신 것 같습니다.

여자 : 영상 속에 나무 드로잉이 등장하는데요, 나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어떤 것을 그려달라고 할 때 그 단어를 고르는 기준 같은 것이 있나요?

이신애 : 이 작업의 시작은 제가 직접 드로잉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드로잉을 받았습니다. 나무, 꽃, 잔디, 이 3가지에 대한 간단한 드로잉들을



받았었는데, 자연물을 뜻하는 단어들 중에서 드로잉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했기에 임의로 이 세 단어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드로잉을 받으면서 저도 제 드로잉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작업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매일매일 나무에 대한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진짜 나무의 이미지는 무엇이기에 나는 이런 고민을 하는지 궁금해졌고, 그래서 계속해서 나무를 그려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드로잉이 규칙 없이 그려지다가 여러장의 나무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는 비슷한 형태의 드로잉이 반복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드로잉을 진행하다보니,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나무의 이미지를 그리다보니 이것들이 합쳐졌을 때에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졌습니다. 드로잉을 하는 과정이 순서 없이 섞여 있는 내 머릿속의 이미지들을 하나씩 뽑아내는 과정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을 기반으로 다양한 드로잉들 중에서 랜덤하게 선택해 나가는 영상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선택하는 과정이 제가 머릿속에서 골라낸 나무라는 이미지를 하나씩 그려나가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된 이미지들을 다시 하나의 모습으로 돌려보았을 때 정체불명의 모호한 검은 덩어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미지란 그 검은 덩어리와 같다는 생각으로 영상 작업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자 : 작업의 성향이나 작업 과정 등에서 소위 말하는 개념미술 쪽에 가까워 보이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기술적이나 조형적으로 고도의 높은 수준을 걸으며 피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각을 읽고 사람들이 이 작업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능동성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의 미술가, 작가가 되겠다고 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말이지요. 잔디는 그 자체로 존재하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잔디가 유지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가로서 특정한 행보를 결심했을 때에는 개념적인 측면이든 기술적인 측면이든 더 견고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 그것이 더 돌출될 것인지에 대해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작가로서 때때로 칼날을 꺼내 보여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들을 위해서 혹은 계속 작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전 박윤삼 작가님이 지적한 것들을 극복하면서 이신애 작가만의 길을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 : 네, 이신애 작가께서 내러티브보다 파편적인 것이 더 많다고 하셨는데 혹시 개인적인 내러티브가 있나요?

이신애 : 아니요, 그러한 내러티브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전체적인 서사가 있진 않지만 각각의 내러티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 :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순간에는 나만의 내러티브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작가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전체적인

흐름을 주는 것과 같이, 전시를 구성함에 있어도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내러티브가 있진 않지만, 의도된 흐름을 가지고 배치한 것이 분명하지 않나요?

이신애 : 저는 작업들이 전시되는 과정에서 서사적이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내러티브는 저에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각각의 작업의 틈도 균일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여자 : 이신애 작가의 작업이 시작된 요소는 쓸모없는 수영장에서 시작되어서 하나의 주제로 다양한 드로잉이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작업과 이 끝의 작업, 두 개만 떼어놓고 보면 주제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각적인 요소만 두고 보았을 때, 드로잉을 한다면 그 행위에서 하나의 주제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 드로잉들은 쓸모없는 수영장에 인공적으로 물이 나온다는 주제를 가지고 드로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선 :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신애 작가의 아티스트 토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